Gimpo-City Council

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

《 제215회 임시회 》

개 회 사

김 포 시 의 회

【 개 회 사 】

○ 존경하는 50만 시민 여러분!
동료 의원 여러분!
정하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!
또한,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!

○ 코로나19, 사회적 거리두기,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
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

○ 그러나, 지역 내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.
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시간을 디딤돌 삼아
이 위기를 잘 극복해
희망의 새해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.

○ '바람 부는 날의 풀' 이라는 윤수천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.

○ 풀들이 바람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
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주기 때문이다.

○ 쓰러질 만하면 곁의 풀이 곁의 풀을,
넘어질 만하면 곁의 풀이 또 곁의 풀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기
때문이다.

○ 김포시의회는 50만 김포시민을 위해서
굳게 잡아주고 일으켜주며 지켜주는 든든한 들풀이 되겠습니다.

○ 민선 7대 시의회 활동이 끝나는 시간까지 일분일초를 아끼며,
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.

○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.
풀뿌리민주주의의 광장으로 시의회는 새롭게 출발합니다.

○ 자치분권과 시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새 지방자치법이 적용돼
시민 권익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.

○ 지난 30년간 시민과 함께해온 김포시의회는 주민 복리 증진을
위한 새 제도 안착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.

○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!
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
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조례안, 일반안건을 처리하는
중요한 회기입니다.

○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바쁜 시기에
시민의 기대와 요구사항이 시정 곳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
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○ 일 년 중 가장 춥다는 소한과 대한 사이의 절기입니다.
전년 대비 잦은 강설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
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통행에 위험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
제설작업 등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○ 임인년(壬寅年)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
감사합니다.